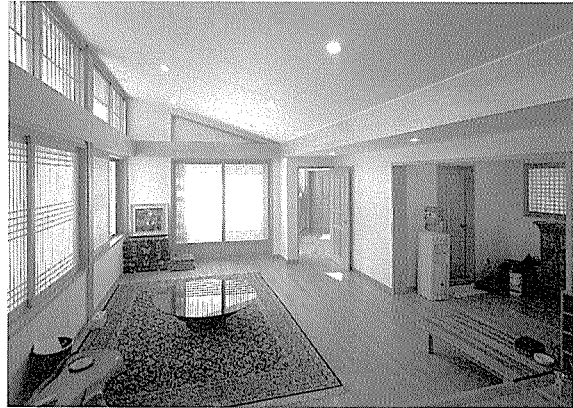


## 욕심없는 건축, 편안한 집

### Not Greedy Architecture, Comfortable House

조용훈/ 안성산업대 건축공학과 조교수  
by Cho Yong-Hoon



P교수 주택 내부

#### 주택건축, 그 영원한 건축의 본질

무릇 건축의 비평에는 작가론, 양식론, 형태론, 공간론, 기술론 등 여러 가지 접근방법이 있으나 그것이 주택작품일 경우는 조금 시각을 달리해야 한다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 그 주된 이유는 굳이 거창한 주택문제를 거론하지 않더라도, 주택은 인류의 등장이래로 건축의 시발점이자 귀착점으로 우리 건축인들의 가장 기본적인 과제이기 때문이다. 즉 건축에 있어서 업무시설이나 문화시설, 체육시설, 공항·병원 등의 공공시설들은 대규모, 대자본을 투자해야 하고 그 시대를 화려하게 선도하는 기념비적인 속성이 많지만, 주택설계의 경우(특히 단독주택)는 우리 건축전문가가 우리 시대의 일반대중 즉 사용자와 가장 직접적으로 접할 수 있고, 또한 그 완성된 작품이 그들의 생활을 직접 담아야 하는 실용적인 측면이 강하기 때문이다. 또한 주택의 경우 무엇보다 현실적인 이유는 규모 때문에 발생하는 설계비의 부족으로 인하여 전문가로서의 건축가의 배려 및 관여가 취약할 수밖에 없고, 일반대중이 건축가에게 요구하는 일차적 기대와 건축가가 활동할 수 있는 영역사이의 근본적 괴리를 일으킬 수밖에 없다. 특히 이 작품과 같은 단독주택의 경우 인테리어설계까지 포함되는 업무의 과중함에도 건축주의 일거수 일투족까지 반영시키는 생활론적인 완전한 이해가 필요하기 때문에 더욱 그러하다. 그러므로 주택에 대한 평가(특히 거주자가 거세된 고건축이 아닌 현대주택의 경우)는 거창한 양식론이나 작가론보다는 보다 현실적인 생활론적, 그에 따른 기능과 공간적 측면, 그 집에 사는 건축주 즉 사용자의 만족도가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고 믿는다. 특히 이 작품의 경우 주변을 규정짓는 도시적 환경이 있지 않기 때문에 도시론적 측면 또한 배제한다.

#### 한옥에의 집착으로부터 살기 편한 집으로

이 주택은 1995년 부암동주택이후 약 3년만에 대중에게 소개되는 작품으로 그동안 작가가 혼신의 힘을 기울였던 중국 868타워의 무산이후 침잠했던 변화의 한 모습을 볼 수 있게 한다. 즉 한계령휴게소(1979)에서 시작되고 갈현동 소나무집(1982), 삼하리 주택(1986)을 통해서 가구식 구조와 목재

디테일에 대한 집착을 일관되게 볼 수 있다면 보다 최근인 90년대에 들어서 남한산성 주택(1994), 부암동주택(1995)은 한옥의 재현에 중점을 두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최근 공개한 그의 경북 봉화의 작업실과 이 주택에서는 그러한 과도한 형태에의 추구나 목재디테일에 대한 집착, 한옥의 재현에의 강한 집념에서 벗어나 사용하는 사람의 편의에 따라 형태나 공간, 디테일이 다소 희석되어 있는 편안하게 비워진 마음을 읽을 수 있다. 작가는 이미 많은 글을 통해 소개되었듯이 비어있는 불교의 정신에 심취되어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 이를 중국 프로젝트 이후 발표된 이 주택에서 읽을 수 있다면 필자의 논리적 비약일까. 그러나 이러한 일련의 집착에서 다소 탈피하고 있다고 해도 이 주택에는 과거 한계령휴게소에서 시작된 가구식 구조와 목재(특히 한국산 소나무)사용이 여전히 보이고, 갈현동 소나무집에서 도입했던 인공마루마당의 도입과 그 가운데의 수목, 장지문의 사용과 툇마루의 도입 등 한옥에의 미련은 역시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이들 요소들은 작가가 버릴 수 없는 건축어휘가 아닌가 싶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주택에서 보다 성숙된 비워진 마음을 찾는 이유는 그동안 집착했던 한옥기와, 박공지붕을 벗어나 지붕형태가 다소 자유로워져 서구적인 들어 올려진 모습을 하고 있어 과도한 형태에의 추구의지가 희석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제는 작가가 그동안의 형태적, 공간적 집착에서 벗어나 사용자 및 건축주의 편안함을 위하여 자신의 의지를 양보하는 보다 큰 대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평가하고 싶고, 비평을 위하여 작가와 함께 방문했을 때 보여주었던 건축주의 만족하는 모습에서 그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 산촌적 지리와 농촌적 토지, 도시적 생활의 갈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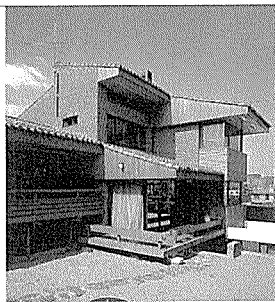
건축의 성격을 규정짓는 대지는 원주에서 충주로 연결되는 19번 국도에서 백운산쪽으로 휘돌아 들어간 외진 곳에 위치하고 있다. 또한 이 대지는 원래 밭이었던 곳을 대지로 형질변경하였기 때문에 주택의 주위는 울창한 나무숲이 아니라

아직 밭으로 사용했던 땅이 다소 황량하게 남아있는 곳이므로 대지의 사회경제적 기반은 농촌적이다. 주변의 경관은 매우 수려해서 대지경계선 너머로 동북쪽엔 오봉산이 지척에 있고, 남동쪽엔 백운산이 멀리 있어서, 우리의 전통가옥이 갖고 있던 배산의 지형을 이상적으로 향유하고 있다. 따라서 주택배치의 출발점은 북쪽에 큰 산을 등지고 있는 전통적 지형과, 산촌이 갖는 지리적 성격, 대지가 갖는 농촌적(밭) 형질, 건축주가 갖고 있는 도시적 생활의 폐쇄성, 이 3가지를 어떻게 조화시키느냐가 가장 큰 요인이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더우기 대담과정중에 거론되었던 대지로의 형질변경 상한선 200평이라는 변수는 이 넓은 밭을 다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제약을 만들어 내었고, 공사비의 제약으로 인하여 조정설계를 본격적으로 건축과 연결시킬 수 없는 근본적인 한계를 부여했던 것으로 보여진다. 따라서 작가는 최근 젊은 건축가들의 작품주택에서 유행처럼 쏟아지고 있는 흠집형 주택과 마당을 둘러싼 'ㄷ' 자형 배치를 포기하고, 안방과 거실사이에 포 마당을 자그맣게 도입하여 인위적으로 나무를 심는 것으로 만족해야 했다. 따라서 그가 공간시절부터 즐겨 사용했던 기존 수목의 보존을 통해서 나오는 평면개념의 구축이 아니라 인위적인 작은 마루마당(테라스마당으로 명명코자 함)을 도입해야 했으며, 또한 거실내에 단이 약간 높은 마루(누마루라 칭하고자 함)를 도입하여 부족한 마당개념을 실내에서 향유하는 것으로 한정시켜야 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 두가지 기본요소(테라스 마당과 누마루)는 평면구성의 가장 핵심적인 개념으로 작용하여, 이 작품의 가장 큰 특징이 되고 있는데, 이는 앞서 지적한 대로 작가가 한계령휴게소 및 갈현동 소나무집이후 일관되게 추구해 왔던 개념과도 일치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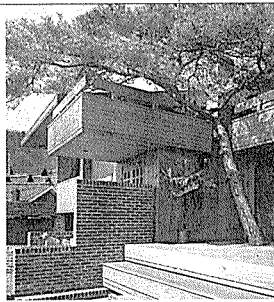
### 주변환경을 향한 건축가의 개방성향과 건축주의 폐쇄성향사이의 갈등

이 주택의 평면구성은 앞서 설명한 테라스 마당과 누마루라는 마당을 도입하기 위한 기본 원리속에 거의 건축계획원론에 충실하게 되어 있다. 북쪽에 현관, 부엌, 화장실을 배치하고 남면에 거실, 안방 등을 배치하여 늘 사용하는 실의 향을 적극 고려하였으며, 그에 따른 조망의 확보에 주력하였다. 건

축주의 폐쇄적 생활에서 나오는 겹집의 논리를 채용하였으나, 침실/작업공간(서재)과 부엌/손님맞이공간(거실)사이에 앞서 말한 테라스마당을 둬으로써 부분적으로 흠집의 개방성을 추구했다는 점이 평면구성상의 가장 큰 줄기로 보여진다. 남향의 이 점을 최대한 향유하기 위하여 테라스마당과 연결되는 앞마당으로 진입하지 않고 계획원론대로 북쪽으로 진입하는 현관을 둬으로써 앞마당이 남에게 침범받지 않는 건축주의 폐쇄적 생활을 보호토록 하였다. 사방이 모두 수려한 경관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동, 남, 서방향으로 큰 창을 배치하였으며, 현관을 들어섰을 때 평면구성의 가장 큰 개념인 테라스마당으로 연결되는 개방성을 확보하기 위해 전면 유리창을 설치하여, 시선을 1차적으로 바깥 경관(앞마당)과 연결시키는 것과 동시에 낮은 공간인 거실과 밤의 공간인 침실을 별도로 분리시키는 효과를 추구했다. 이는 삼하리주택에서 작업실을 별도로 분리했던 것과 비슷한 맥락으로 보여지지만, 내부공간으로 연결되어 있고 또한 지붕을 연결시켜 외관상 하나의 건물로써의 이미지를 강화한 점은 삼하리주택과 다른 점이라 하겠다. 작가가 이 프로젝트에서 가장 중점을 둔 것은 사방의 좋은 경관을 감상할 수 있는 조망의 최대한 확보로 이를 위해서 낮은 창틀과 전통주택이 갖고 있던 툇마루를 서재뿐만이 아니라 거실바깥에도 도입하려고 하였다 한다. 그러나 건축주가 외부사람과의 접촉을 극히 꺼리는 폐쇄적 성격에다가, 외진 곳에 홀로 생활하는 문제 때문에 앞이 시원하게 터진(남서향) 앞마당으로 툇마루 및 전면개방창을 도입(특히 거실)할 수 없었던 탓에 결국 내부원결형의 평면을 채택하였고, 이에 대한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 안방 및 거실에 고창을 도입하여 남서향으로 들어 올려진 지붕형태를 도출하였다. 결국 평면이나 입면의 경우 작가가 지향하는 주택의 개방성과 건축주가 고집하는 폐쇄적 생활사이에서 절충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도출되었다고 보여지며, 이점 때문에 필자는 이 주택을 과도한 조형의지나 인위적 공간구성을 절제한 욕심없는 건축, 그래서 건축주/사용자에게 가장 편안한 집으로 구현되었다고 본다. 이에 따라 작가가 지향하는 개방성은 고창을 통해서 부분적으로 얻어지며, 건축주가 지향하는 폐쇄된 생활양식은 거실바닥에서 약간 올라간 유리창으로 절충되었다.



역삼동 J씨 주택



갈현동 소나무 집



남한산성주택

## 거주자의 책임인 작품의 완성

서두에서 지적하였듯이 주택은 다른 건축물과 달리 건축주와 사용자가 일치하는 속성을 가장 많이 갖고 있다. 따라서 건축주의 성격은 프로젝트의 시작부터 끝까지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으며, 이 주택의 경우 건축주가 주관이 뚜렷한 탓(한국 최고의 지식인층)에 건축가와와의 절충에 실패한 곳에는 여지없이 작품을 훼손시키는 약점을 보이고 있다.

지붕형태에 대한 평가는 비교적 긍정적으로 보여지나 문제는 고장에 방법그릴을 설치하여 그 조형성을 훼손시킨 점이다. 일차적으로는 건축가와 상의없는 건축주에게 책임이 있다고 보여지나 또한 미리 그러한 가능성을 예견하여 보다 적극적인 대처를 하지 못한 점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작가가 못내 아쉬워하는 점으로 준공후 지하층의 주차장 필로티에 알루미늄 창호를 설치한 것도 마찬가지로 맥락이다.

이러한 건축주의 폐쇄적 성향에서 발생하는 또 한가지 아쉬운 점은 현관에서 들어서서 강조한 전면 조망창이 서재 및 거실에 들어왔을 때 연결되지 못하는 점이다. 방법을 고려한 그릴을 설치하는 한이 있어도 현관 복도에서 양쪽으로 나뉘어져서 들어왔을 때 보이는 서재의 서재창과 동측의 하얀 벽이 바닥까지 닿는 전면유리창이었다면 시선의 극적 효과를 기할 수 있을 뿐더러 상기 건축주의 폐쇄적 성격에 기인한 공간구성에 다소 숨통을 틔웠을 것이고, 현관복도에서 이어지는 가상의 복도를 통하여 미당을 도입한 것 같은 커의 유연성을 획득할 수 있었을 것이다.

평면 및 입면구성에서 작가가 즐겨 쓴 또 한가지의 특징은 그동안의 작가의 일관적인 건축어휘로서 전통적 소재인 창호지문(장지문)을 모든 서재 및 거실창에 도입한 점이다. 이는 남향에서 들어오는 직접광을 부드럽게 여과시켜주는 역할을 하고 있을 뿐 아니라 목재로 마감한 모든 콘크리트기와 어우러져 실내에서의 전통적 공간분위기를 최대한 연출시키고 있다. 실내 및 실외에서의 모든 목재마감처리는 매우 깔끔하게 되어 시각적, 공간적인 즐거움을 제공하고 있는데, 아쉬운 점은 창을 제외한 모든 문이 목재양면플러쉬 문으로 통일되어 있어 다소 지루한 감을 주고 있다.

최소한 거실로 통하는 문만이라도 격자가 있는 목재유리창이었으면 거실로의 시각적 개방감과 함께 자연스럽게 손님접대기능을 갖고 있는 동선으로 유도될 수 있었을 것이며, 이것이 앞서 지적한 대로 동측에 전면유리창을 설치할 수만 있었다면 커의 분할을 통한 가벼운 공간구성효과까지 노릴 수 있었기 때문에 아쉬움이 남는다. 건축주와의 대담시 제기되었던 서고의 설치가 건축가의 제안대로 지하층 필로티와 연결되어 앞마당 지하에 설치될 수 있었다면, 앞서 지적된 주택의 폐쇄성을 상당히 극복할 수 있으리라 보여지며 또한 예산상의 부족과 토지형질변경의 한계로 인해 정리되지 못한 조경의 마무리를 통하

여 작품의 완성을 볼 것이다. 건축주의 지속적인 관심과 사랑을 기대해 본다.

## 토종 건축가, 류춘수: 김수근 건축을 넘어서 세계적 건축가로

필자는 대학 4학년때(1981년) "공간"에 실습을 나가면서 작가와 처음 인연을 맺었는데, 당시 김수근 교수 밑에서 고 장세양씨와 더불어 가장 활발한 활동을 하고 촉망받던 실장으로 기억한다. 그후 "공간"에서 목동아파트 설계(1985년)를 하면서 직접 지도받는 영광을 가졌었는데, 그의 유명한 그림 실력은 두말할 나위가 없고 테크놀러지 및 디테일에 대한 집요한 추구와 더불어 그의 해박한 한문실력, 당시 공간의 사내지 「공간」에 고정칼럼을 연재하는 문장실력과 철학실력은 모든 후학들을 경악시키는데 충분했다. 그후 약 10여년의 기간을 밖에서 존경스러운 눈으로 한국건축계의 거장으로 성장하는 그의 모습을 보고 있는데, 당시 김수근건축이 추구하던 세계시장으로의 진출을 끝까지 시도하는 몇 안되는 "공간"의 후계자그룹에서 단연 돋보이며, 이는 얼마전 타계한 고 장세양씨 때문에 그의 비중이 더욱 커지고 있다.

원고의뢰를 받고 건축가와 대담을 하는 날, 작가는 월드컵 주경기장 당선 축하전화를 받느라 정신이 없었다. 굳이 여기서 토종 건축가 운운하는 이유는 최근 물밀 듯이 밀려오는 외국건축가들의 한국 현상설계의 참여와 외국에서 수학한 많은 젊은 건축가들의 등장, 대기업을 앞세운 대형사무실의 위세에 맞서서 척박한 한국의 건축현실에서 치열하게 성장해 오며 작품에 대한 열정으로 뿌리를 내려와 이제는 세계속에 우뚝서는 원로(?) 건축가를 다시 갖고 싶은 것이다. 그것도 외국에서 수학한 것도 아니고, 식민지 건축의 한계를 갖고 있는 2세대 건축가들을 극복하면서 이 척박한 땅에서 치열하게 자라고 배운 우리의 토종건축가에게서...

그가 한계령휴게소를 설계할 때 약삭같이 추구했던 목재와 철골의 디테일보다, 최근 경영상 그를 가장 힘들게 했던 중국 868타워의 명성보다 그를 더욱 우리 시대를 끌고갈 원로로서의 가능성을 갖고 있다고 보는 가장 큰 이유는 일찍이 동남아시아의 건축가들과의 교류를 쌓고 동남아 시장에 진출해서 아시아건축의 새로운 발전을 위하여 헌신하는 점이다. 하나의 작품에 혼신의 힘을 쏟는 열정야야 최근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는 모든 건축가들의 공통된 쟁이기질이지만, 국내건축의 한계를 극복하고 멀리 해외로 향하는 그의 열정은 김수근 건축이 추구했으나 넘어서지 못했던 한계를 극복할 가능성을 충분히 보여주고 있으며, 이 작품에서 보여지는 욕심없는 건축, 건축주의 생활을 위하여 자신의 조형의지를 접어들 수 있는 그의 비워진 마음속에서 바로 이런 큰 건축을 향하는 대기가 가시화되었기 때문이다. 이것이 김중업, 김수근 선생의 타계이후 또 하나의 거장을 바라는 우리 건축계의 바람이라면 무리일까.

## 이 시대의 마지막 로맨티스트

작가와 당선된 월드컵 주경기장 설계진행방법에 대해 얘기를 나눌 때 필자는 건설회사의 설계실에서 근무했던 경험으로 힘들게 인원을 많이 보강하지 말고 제일 인원이 많이 필요한 실시설계를 어차피 턴키방식이니 건설회사에 위임하면 어떻겠냐고 제안했다. 선생께서는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아직 까지도 남아있는 공간스타일, 즉 계획설계부터 실시설계, 감리까지를 모두 총괄하는 기존의 방법에 대한 미련이 있는 듯 했다. 물론 필자도 이러한 기존방식이 가장 좋다는 것은 알고 있고 또한 그렇게 훈련을 받았지만 차제에 이 글을 통해 본심을 말씀드리면 작품에 대한 욕심 때문에 선생님의 건강에 무리가 갈까 염려하며 고 김수근, 장세양씨가 불의에 타계한 것도 바로 이러한 작품과 경영을 동시에 만족시켜야 하는 우리 설계업계의 무리한 업무에 있었다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이제 정보화, 국제화시대를 살아가야 하는 우리 후배들로서는 우리의 건축을 선도할 거장을 잃고 싶지 않으며, 이러한 세기에 그 골치아픈 수주/경영에 집착하지 않고 건축 작품 그 자체에 몰두하는 분업화된 쟁이기질로 끝까지 마무리해 가는 건축가의 모습이 그리운 탓이다. 이 쟁이기질은 몰두할 수

있는 곳에만 발휘될 때, 그 아름다운 로맨티스트가 될 수 있을 것이며 이 주택을 통해 보여준 그의 욕심을 비운 마음이 이것을 가능하게 해 주지 않을까 기대해보는 이유이다. 경영자와 건축가를 분리할 수는 없을까. 이에는 구조도면을 구조설계자에게 넘겨주자는 필자의 뿌리깊은 주장과 함께 전문적인 부분은 후배들 혹은 전문경영인이 채워주길 기대하는 거장의 여유로움을 기대해 본다. 물론 본인이 직접하면 가장 잘 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사는 인생이 워낙 짧으니... 선생님 월드컵 주경기장 설계가 완성될 때쯤이면 이제 그 답수룩한 장발머리에서 단정하게 무스를 바르고 뒤로 넘겨서 국제 비즈니스계에서 화려하게 교류하는 세련된 건축가 혹은 21세기형 경영자로서의 모습을 보여줄 수는 없을까요?

덧붙여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 IMF시대의 상념 한가지 더... 최근 우후죽순 솟아나고 있는 서구의 통나무주택에 대항하여 우리 토종건축가의 작품이 대안이 되고 이를 미국으로까지 수출할 수는 없을까. 이를 위해서는 디테일에 대한 집착보다는 통나무주택보다 더 싸게 지을 수 있게 만드는 건축가들의 전원주택에 대한 애정과 사업감각, 생산감각, 건축산업계의 분발을 기대해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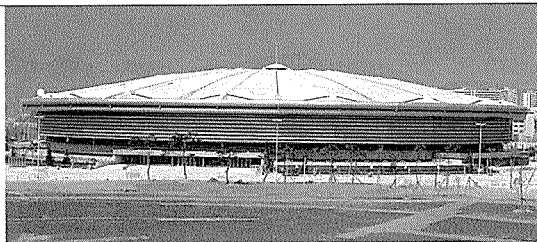
## House and Housing: An Everlasting Essence of Architecture

Several approaches to architectural criticism exists: Frames of the artist, style, form, space, technology, and etc. But in the case when the object is a work of housing, which is the primary and basic form of built architecture, a different point of view should be adopted. Whereas facilities such as offices, culture centers and sports centers require large amount of capital and tend to contain a monumental value, housing is a field where the architect comes in direct contact with its users, whose functional demands according to each lifestyles should be fulfilled. It is here where, due to financial restraints from the built scale, the architect's role as a professional is at times overruled. The architect's ideal and reality is seldom revealed with such precision. The comprehension and resolving of the client's requests onto every details, even

into the subtle parts of the interior, are indeed an unusually heavy task for the artist.

## From Persistence on Concept of Traditional Housing to More Practical Idea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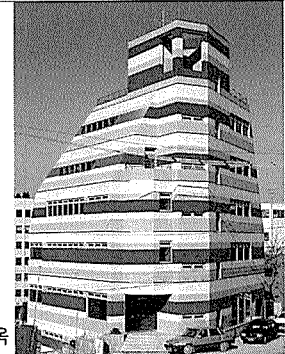
This work is the first housing project of architect Ryu Choon-Soo, since the Buahm-dong Housing of 1995. It displays the architect's transformations of style after the cancelling of the ambitious 868 Tower Project of China: From Hangaeryung Rest Station(1979) to Pine House of Galhyun-dong(1982) and Samha-ri Housing (1986), he concentrated on tectonic structures and details of wood structure: More recently, with Namhan-sansung Housing(1994) and Buahm-dong Housing(1995), the reconstruction of traditional housing images became his prime objective. But the latest work, his own studio and housing in Bonghwa, Kyeongbuk Province, shows that he



88올림픽 체조경기장



대전EXPO 대전시관



자미은사옥

is now into works without acquisitiveness, a rather fluid entity, without too much emphasis on form, space and details, meeting the needs of its users. This change may be linked to the architect's recent turn to a faithful Buddhist.

Still, the House of Professor P displays various elements from his previous works: the tectonic structure made of wood (especially Korean pine trees), the courtyard of artificial Maru, or the use of Toe-Maru. They seem, now, to have formed the architectural vocabulary of the architect. Within these uses, we can see his obsessive formal trends are somewhat diluted in that the roof is now shaped in a Western way. This more open attitude, escaping the bound application of traditional forms, found its value in the client's satisfaction, which, when I visited the house with the architect, saw for myself.

### **Conflict Among Mountain Geography, Agricultural Topography and Urban Life Styles**

The site is located in an isolated area, around Mt. Baekwoon from the national road connecting Wonju and Chungju. As it was previously used as a cultivating field, the surrounding condition was not yet that of a dense forest. Nevertheless great vistas could be found in each directions, establishing an ideal setting of a traditional housing.

The initial problem of the layout was to form harmony among three elements in conflict: The traditionally meaningful condition of the large mountain on its rear(north); the geographical aspect of the mountains; and the demand for an urban, closed condition of the client. Constraints were formed from the building code limitation of the area's residential use, and the confined budget, which disabled an active link between the building and the surrounding landscape design. This resulted in the discard of the ever-so-popular (among young practitioners) housing types, and the architect had to be content with the insert of a small courtyard between the master bedroom and the living room. This factitious use of nature (which I shall call a terrace court) is something quite different from his style in the Group Space-period, and shortage of courtyard space had to be supplemented by the Maru of lifted level (namely the NuMaru) in the living room. These two elements act as a core concept of the project, which, as I above mentioned, can be traced back to the Hangaeryung Rest Station and Pine House of Galhyun-dong.

### **Conflict Between the Architect and the Client: the Open Versus the Closed**

With the application of terrace court and the NuMaru, the rest of the layout accurately follows the regular planning principles of daylight control and providing good vista. The injection of the terrace court serves as a subtle opening within the a closed envelope, adjusting to the urban lifestyle of the user. To make the most of the merits of southern direction, the front garden connected to the terrace court does not act as the main approaching road. It is made on the rear side, expelling any outer interferences in the front garden.

As every direction commanded a fine view, large openings were made in the south, east and west, and as one enters the entrance, he is greeted by a window expanding the full length of the wall, opening up to the terrace court. Our vision here primarily gets linked to the front garden, and effectively divides spaces of day and night, i.e. the living room and bedroom. This may seem similar to the dividing method applied in the Samha-ri House, but is distinguished by it in that the indoor spaces are combined and the image of the whole as one-piece is enhanced by the connected roof. The idea of Ryu to invite the picturesque surrounding vista, which resulted in the low placement of windows and the use of Toe-Maru in many spaces, came in conflict with the client's inclination for closed space and the isolated condition of the site. An inner-sufficient plan was thus applied, and shortage of openings was solved by the use of clerestory in the master bedroom and living room, which in turn formed the lifted roof towards the southwest. It could be said the overall form was a natural creation of the interplay between the architect's formal wills and the client's functional demands.

### **The Completion of a Work is the Responsibility of Its Users**

As mentioned in the beginning, housing is where relatively large portion of the architect and the client come in accordance. The influence of the client on the work is clearly evident in housing projects, and in this case, where the client has a very clear definition of his taste, traces of failed compromises between the artist and its client do heavy damage to the overall work.

The shape of the roof seems to have met affirmative reaction, but the addition of security bars on the clerestories is a definite formal discordance. The usual blame for these goes to the user, making adjustments without consulting the architect, but the architect on the first place should have anticipated these problems. Also an unsatisfactory point in this respect is the post-completion adding of the aluminum doors in the parking piloti. The client's preference of a closed structure also effected the discontinuing of the entrance's open vista to the study and living room. Placing a huge window screen, covering the west of the study and the white wall of the east, would, even with inevitable installation of security barriers, have compensated for the closed layout, and an imaginary corridor from the entrance hall would have elasticized the layers of space. The use of paper-finished windows, a constant feature of Ryu, controls the direct intrusion of sunlight, and along with the concrete structure finished with wood panels, creates a traditional atmosphere. The application of the same doors to every instances remains as something less successful. During a conversation with Ryu, he mentioned a future addition of a book storage, in the basement of the front garden connected to the underground piloti. It seemed like a good way to overcome the present closed condition. I hope the client preserves his interest and love for his housing, and have an open ear for meaningful modifications.